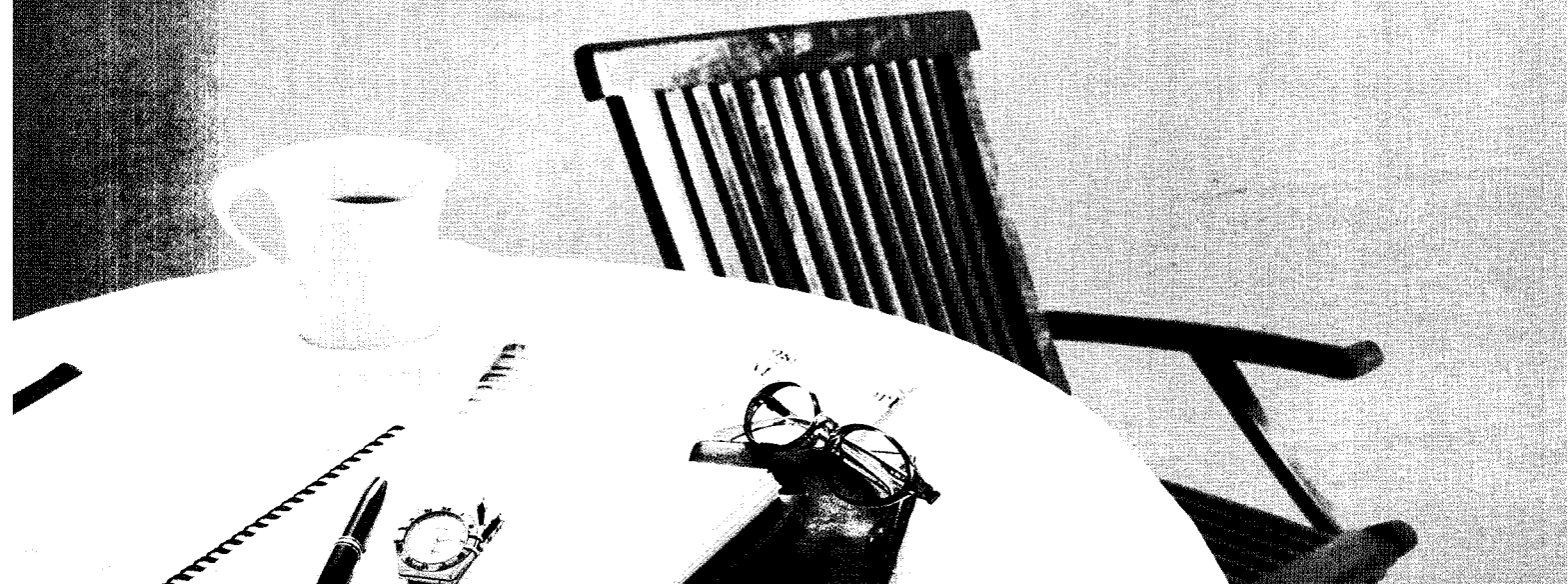


# 우리집

## 알뜰한 변신 노하우

차가운바람이 옷깃을여미게 하는 겨울,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빈번한 모임이나 망년회로 한층 바빠지는 계절이다. 올해는 감기에서 신종플루까지 바깥 외출이 유난히 걱정스러운 때라 각종 송년모임을 가정에서 열겠다는 계획들이 늘고 있다. 마음먹고 대청소를 해보지만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박준호 기자



### ● 한층 따뜻하고 화사한 벽 연출하기

올 한해 경기침체로 인해 피부로 느껴지는 뼈뚫한 형편,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방이나, 거실 또는 그 공간의 한쪽 벽면에만 벽지, 타일 등을 바꾸거나 소품을 활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크리스마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붉은색 계열의 포인트 벽지나 따뜻한 색감의 벽지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천연벽지 등을 한쪽 벽면에만 바를 경우 10만원 내외에 공사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기존의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다. 벽지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1~2만 원대의 포인트 스티커를 구입해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벽지를 바꾸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면 액자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금속성 액자나 아크릴 액자는 겨울에는 차갑게 느껴지므로 포근한 소재의 패브릭 액자나 따뜻한 꽃그림이 들어간 액자를 활용한다면 한층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 커튼 하나로 확 달라진 우리집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방에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은 뭐니뭐니해도 커튼이다. 요즘은 심플하고 차분한 검은색이나 와인색 등의 컬러가 유행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신혼집 등의 집 분위기나 특성에 따라 취향에 맞는 컬러와 소재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요즘은 벤티칼과 커튼이 합쳐진 트피플 소재나 이중으로 된 롤스크린형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살려내고 온화하고 포근한 장식성 커튼의 경우 그 기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벽지나 바닥재의 색상과 밸런스를 맞춰 장식한다면 집안 전체를 더욱 넓고 화사하게 바꿀 수 있다. 커튼의 경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진열된 상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원래 가격의 1/4 가격 정도로도 괜찮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 ● 음식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드는 식탁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식탁의 경우 겨울철에는 차가운 느낌이 들뿐만 아니라 식욕까지 떨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큰 꽃무늬패브릭이나 와인색 벨벳패브릭을 식탁보로 깔아보면 어떨까. 맛깔스런 음식만큼이나 손님 상차림에 이만한 장식도 없을 것이다.

패브릭전문점을 이용할 경우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동대문 종합시장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상가 등에서 천만 구입해 식탁에 씌우면 된다. 소재별로 1야드에 5,000~20,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며 4인 식탁을 기준으로 6야드 정도면 충분하다.

### ● 한겨울에도 생기 넘치는 야생화로

외출이 부담스럽고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에는 집안 곳곳을 생기로 물들이는 야생화 화분 하나만으로도 멋을 연출할 수 있다. 야생화는 그 자체만으로 은은하고 산뜻하지만 집안 곳곳에 화분을 진열할 경우 적어도 집안에서는 마치 봄처럼 추운 계절을 잊을 수 있어 기분이 상쾌해진다.

양재동 꽃시장도 있지만 강남터미널, 남대문 등의 꽃상가들을 잘 둘러보다보면 의외로 저렴한 야생화나 화분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싱싱하고 다양한 야생화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각종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⑥

